

No.20170712-001

제목: 버스 도서관 메구링의 사건 수첩

저자: 오오사키 코즈에

페이지수: 253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11월 30일



<내용소개>

이동도서관 '메구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일상 미스터리

소설가 중에는 자신의 체험담을 각색하거나 응용하여 새로운 이야기로 풀어내는 경우가 꽤 있다. 13년간 서점직원으로 근무했던 '오사마 고즈에'도, 사람들에게 서점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주면 흥미로워하는 것을 보며 소설로 써보기로 다짐했다고 한다. 데뷔작인 《빨간두건 배달부》를 비롯해, 책이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 소설들을 여럿 선보여왔다. 이번에 소개할 최신작 《책 버스 메구링》은 이동도서관이 배경이다.

운전경력 40년에 빛나는 '데루오카 히사시(데루)'. 정년퇴직 후 60대 중반의 나이에 재취업한 일자리는, 그가 거주 중인 다네가와 시의 버스형 이동도서관이다. '메구링'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이 버스는, 약 3000권의 책을 싣고 시내의 16곳을 2주에 걸쳐 순회한다.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4일동안, 오후에 2~3곳씩 방문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운전기사로 취직했지만 해야 할 일이 많다. 책을 놓아둘 책상을 펴고 대출용 카운터를 만들고 업무용 노트북과 바코드 리더기를 설치한다. 안내판을 정해진 위치에 걸고 차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임시 계단을 준비하는 등 사소하지만 필수적인 잡무들을 도맡고 있다. 함께 이동도서관 버스를 타고 다니는 동료이자 일을 가르쳐주는 상사는, 딸보다도 더 어린 20대 중반의 여성 '우메조노 나오코(우메)'다. 이 소설은 에너지 넘치고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는 '우메'와 나이 지긋하지만 새로운 세계를 흥미롭게 배워가는 '데루'가 파트너가 되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방문지에서 마주하게 되는 미스터리 사건들을 다룬다. 현실에서 있을 법하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들이다. 일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엔 충분하다.

미스터리 에피소드도 재미 있지만 그 외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포인트가 여기저기 들어 있는 작품이다. 전 서점직원이었던 작가가 책이 있는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기 때문이다. 이동도서관은 보통도서관과 달리, 버스 방문지의 지역적 특성이나 인구구성 혹은 계절과 유행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사서가 직접 책을 선정해야 한다. 공간적 제약이 있고, 이용자와 직원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인공인 데루 씨는, 회사에서 얻은 지식과 인간관계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서 제2의 인생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리고 다네가와 시의 주민이었음에도 이제

껏 알지 못했던 마을의 면면을 '메구링'을 통해 비로소 발견한다. 책과 관련된 독특한 미스터리 소설이자, 많은 이들의 공감하며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

<저자소개>

오오사키 코즈에

도쿄에서 태어났다. 전 서점직원이다. 2006 년, 서점에서 일어난 작은 수수께끼를 그린 《빨간 두건 배달부》를 발표하며 데뷔하였다. 그 외 《평대를 기다려》, 《한쪽 귀 토끼》, 《스노우 후레이크》, 《여름의 고래》, 《천재탐정 SEN》 시리즈 등을 집필하였다.

No.20170712-002

제목: 릴리즈

저자: 고야타 나츠키

페이지수: 316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10월 18일



<내용소개>

'남녀평등, 동등한 권리'를 비틀어 바라본, 새로운 시대의 디스토피아 소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는 결국 하나의 동일한 현상을 정 반대되는 관점에서 바라본 결과물이다. 근대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진보한 과학·기술발달에 대해, 긍정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는 소설과 부정적이고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는 소설이 꾸준히 발표되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올더스 헉슬리가 1932년에 출간한 <멋진 신세계>일 것이다. 사람들이 유토피아라고 믿는 사회가 사실은 디스토피아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희망과 경계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대상인 '기술발달'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야타 나츠키의 《릴리즈》는 '오셀'이라는 가상의 국가를 무대로 한다. 여성 총리 '미타 존즈'는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상을 법률로 확립했다. 이성애는 과거 남녀차별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다. 정부는 '오셀 스펜뱅크'라는 이름의 정자은행을 국영화하고, 이는 나라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다. 인간의 생식과 비즈니스를 결합시킨 덕분에 사람들은 더 이상 성 역할을 강요 받지 않게 되고 아이를 보다 자유롭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이 스펜뱅크를 점거한다. 명문 대학교에 재학 중인 21세, 이성애자인 '타카나미 보나'는 은행에 정자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계속 거부해 왔다. 그 자리에서, 총리 미타 존즈가 자신을 검탈하였으며 정자ID도 도난 당했다고 폭로한다. 하지만 돌연 나타난 테러리스트 '오리온 엔다'에게 사살되면서 사건은 급히 마무리된다. 한편 그 광경을 지켜본 17세 '유키나다 비이'는 보나가 보여준 말의 힘의 매료되고, 온라인 뉴스 미디어 '퀘스티'의 기자가 된다. 이제 막 생겨난 온라인 뉴스 미디어로, 무사상을 지향하는 곳이었다. 비이는 보나와 엔다, 두 테러리스트의 실상의 추적하면서 오셀이 남녀평등을 위해 추진하는 일들과 방향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남녀평등'은 현대 사회의 주요 화제 중 하나다. 최근 양성이 동등한 대우받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릴리즈》는 이와 관련된 디스토피아 소설일 뿐이다. 현재 상황들을 성별을 바꿔 역으로 적용하거나, 겉에서 보기엔 이상적인 것 같은 세상을 한 번 더 꺾어서 본다. 억압이 만들어낸 테러리스트들과 그 뒤를 쫓는 기자

의 이야기는 성과 사랑의 본질, 테러리즘 등 다양한 세부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의 희망과 기대, 집착과 단념, 해방을 암시하는 '릴리즈'라는 제목과 잘 어울리는 SF소설이다.

<저자소개>

고야타 나츠키

1981년 치바 현에서 태어났다. 2013년 <올해의 선물>로 제25회 일본 판타지 노벨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별나라 사람의 크리스마스》로 제목을 바꿔 등단하였다.

No.20170712-003

제목: 정년 퇴직 후 - 50세 이후의 삶의 방식

저자: 구스노키 아라타

페이지수: 221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4월 19일



<내용소개>

보다 행복한 노년기를 위해, '정년 퇴직 이후'의 인생을 계획하고 연습해보자

출생 직후부터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기대수명'이라고 한다. 197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1.93세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76.02세, 2010년에는 79.6세로 점점 길어졌으며 2030년 한국 여성과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각각 90.8세와 84.1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영양수준, 교육, 의료 기술의 질적인 향상 덕택에 미래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길어질 것이다. 더 오래 사는 것은 인류의 꿈이지만, 한편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늘어나고 있다. "60대 이상 노인들의 생계수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대표적인 문제이다.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조직이나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60~65세 사이에 '정년'을 맞는다. 경기불황이 길어지면서, 사기업에서는 40대부터 퇴직 압박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비교적 나이가 젊을 때는 새로운 직장을 다시 얻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년을 다 채운 이들은 갑자기 오갈 곳이 사라진다. 서점이나 도서관, 공원, 경로당 외에 달리 외출할 곳이 없어 사회에서 갑자기 고립되었다고 느끼기 쉽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 청년실업률도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어렵다.

이 책은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50세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생 후반부를 성실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다룬다. 라이프사이클의 시점에서 정년 후의 '경향과 대책'에 관해 고찰하였다. 회사에서 물러난 뒤 생기 넘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저자 주변에도 20%에 불과했다고 한다. 갑자기 사회와의 연결지점을 잃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소를 잃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평일과 주말의 감각도 희미해지고 규칙적이던 생활리듬도 깨지기 쉬우며, 자기의 이름이 불릴 만한 곳이 병원 정도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특히 일본 남성들은 바깥일에만 집중하며 살다가 활동영역이 갑자기 가정으로 바뀌면 자신의 위치를 잃어 더 외로워지기 쉽다는데, 이는 한국 남성들과 겹치는 부분이다. 정년 이후부터 초고령 기준 연령인 75세가 될 때까지, 사회와 어떻게 새로운 접점을 만들고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보자고 한다. 또한 '죽음'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역으로 계산해 보는 과정도 설명한다.

행복한 얼굴로 사는 것. 그것이 정년퇴직을 맞이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닐까? 여전히 활동 중인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정년 후에 기다려야 할 현실을 분명히 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한 힌트를 알려줄 책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인생은 후반전이 승부

제 1장: 전원이 합격점

제 2장: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20% 미만?

제 3장: 남편의 기운으로 집을 지키는 것이 좋다

제 4장: <황금의 15년>을 빛나게 하기 위해

제 5장: 어떻게 사회와 이어질까

제 6장: 있을 자리를 찾다

제 7장: <죽음>에서 역으로 계산해 본다

<저자소개>

구스노키 아라타

1954년 고베 시에서 태어났으며, 교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대형 생명보험회사에 입사하여 인사·노무관계를 중심으로 경영기획, 지사장 등을 거쳤다. 근무를 하면서 오사카부립대학 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였다. 간사이대학 상학부 비상근강사로 일하며, <일하는 의미>를 주제로 취재·집필·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2015년 정년 퇴직 후, 현재 구스노키 라이프&커리어 연구소 대표, 고베쇼인여자가쿠인대학 비상근강사를 맡고 있다. 기타 저서로는 《회사가 싫어지면 읽는 책》, 《인사부는 보고 있다》, 《샐러리맨은 두 번 회사를 그만둔다》, 《경리부는 보고 있다》, 《취직활동의 착각》, 《마음의 정년을 극복하라》 등 다수가 있다.

No.2017071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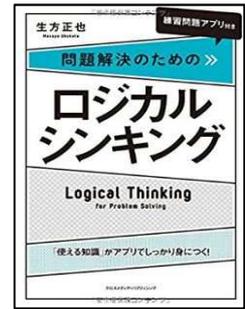
제목: 문제해결을 위한 로지컬 씽킹 트레이닝

저자: 우부카타 마사야

페이지수: 191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3월 27일



<내용소개>

'로지컬 씽킹'을 쉽게 배우고 연습문제로 실전 능력도 향상시키는 비즈니스 실용서

업무를 하다 보면, 본인과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해야 할 때가 많다. 서로 이견이 있을 때, 저마다 상대방을 이해 및 설득시키려 노력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논리력'이다. 주장은 그에 걸맞은 타당한 논거가 받쳐줘야 비로소 힘을 가진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로지컬 씽킹'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세계 최대의 컨설팅회사 '맥킨지 앤드 컴퍼니'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이제는 회사·업종에 상관없이 글로벌 비즈니스 스탠더드로 자리잡았다.

이 책은 로지컬 씽킹을 기초부터 알기 쉽게 해설한다. 사물을 논리적인 과정에 따라 판단하고 과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아내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단계에 돌입하는 것. 심플하고 유연하며 신속한 행동의 기반에는 로지컬 씽킹 즉 '논리사고'가 있다. 여전히 비전문가에게는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개념인지 관련 서적들이 꾸준히 쏟아져 나온다. 인재개발 및 조직혁신 분야에서 컨설턴트로 일해 온 저자는, 사람들이 보다 친근하게 로지컬 씽킹을 접하고 활용하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본문은 우선 '로지컬' 즉 논리적이라는 것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한 다음 논리적인 사고의 기초, 논리적인 사고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기술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마다 업무 상황에서 겪는 고민이나 곤란한 상황을 제시한 다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방식과 지식 등을 설명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그저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차근차근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보다 강화된 트레이닝 방법들을 소개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관점 바꾸기,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기, 사고를 시각화하여 전달하기, 비교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로지컬 씽킹 단련 방법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책의 차별화된 특징이자 강점은, 실제 연습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모바일 시대답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문제해결 내비게이션>이라는 앱을 다운 받으면, 매주 1회 객관식 형태의 연습문제를 받아볼 수 있다. 본인이 어느 분야에 강하고 어느 분야에 약한지 스스로 체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로지컬 씽킹은 업무뿐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지식과 실천방법을 동시에 익힐 수 있는 이 책을 통해 논리적 사고의 유용함을 체험해보자.

<목차소개>

- 제 1장: 모든 일의 기본은 <로지컬하게 생각하기>
- 제 2장: 로지컬하게 생각하기 위한 기초
- 제 3장: 빠르게, 깊게, 정확하게 생각하기 위한 툴
- 제 4장: 로지컬하게 전하는 기술
- 제 5장: 문제해결능력을 한층 더 갈고 닦는 트레이닝

<저자소개>

우부카타 마사야

HR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도쿄대학 문학부 졸업.

닛산자동차에서 거래처 부품 업체의 경영분석 및 지도를 담당하였다. 윌리엄.M.머서(현: 머서 재팬)에서 인사제도 개혁, 조직혁신 컨설팅을 맡았으며, 이후 글로비스를 거쳐 독립하였다. 현재 인재개발·조직변화에 관한 컨설팅과 더불어 로지컬 씽킹·정보활용기술·가설사고 등의 분야에서 지도·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조직적 스토리 사고 입문》, 《아웃풋의 질을 높이는 가설 검증력》, 《아웃풋의 정밀도를 폭발적으로 높이는 <사고의 정리>의 모든 기술》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70712-005

제목: 사교육 격차의 경제학

저자: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페이지수: 240

장르: 경제

출간일: 2017년 06월 23일



<내용소개>

일본의 교육제도에 소리 없이 생겨나 점점 커져가는 격차를 예리하게 분석한다

옛 속담 중 '부자 삼대를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1대에서 가세를 일으켜 부를 쌓으면 2대는 사치와 낭비벽이 든 데다가 무능하기까지 해 모아둔 재산을 탕진하고 3대에 가서는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즉, 예전에는 시간이 흐르면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 부가 사라지고 계급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였다. 요즘은 어떠한가? 부모의 부는 점점 더 커져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질수록 부와 권력은 점점 막강해진다.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격차를 연구해 온 저자가, 이번에는 자녀교육에 눈을 돌렸다. 특히 사교육에 주목해, 여러 각도에서 사교육의 존재 이유와 운영 방식 등을 평가해 나간다. 1장의 주요 테마는 '학원'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별로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시켜 보충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학원에 다니는 아이와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두 파트로 나누어 학원 교육의 효과,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특징을 여러 기준에서 분석해본다. 2장에서는 사교육 중에서도 예체능 분야를 집중 조명한다.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수영과 피아노라고 한다. 예술분야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사이에도 교육비용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3장에서는,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추산해본다. 고교졸업까지 학교교육과 관련해 드는 비용, 사교육비, 다니는 학교와 주거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이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4장에서는 자녀교육을 부모에게 일임하는 일본의 암묵적인 관습에 대해 생각해본다. 에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시작점을 찾아본다. 교육은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공공부문에서는 교육비 지출을 하지 않는지 되묻는다. 마지막 5장에서는 일본의 교육제도가 개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와 사회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일지 고민한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올바른 관계 정립뿐 아니라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 책은 일본의 현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작년 초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천원, 중학생 27만 5천원, 고등학생 26만 2천원이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전인교육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강남 대치동의 초·중학생 사이에 체육 사교육 바

람이 불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일본도 한국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교육제도. 그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안한 책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학원에 가 있는 아이와 가 있지 않은 아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 제 2장: 피아노와 축구 등 예체능을 배우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 제 3장: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 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
- 제 4장: 왜 일본은 교육을 부모에게 맡긴 것일까
- 제 5장: 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 사회가 해줄 수 있는 것

<저자소개>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1943 년 효고 현에서 태어났으며, 오타루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오사카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Ph.D.) 후, 교토대학 경제학부 교수, 도시샤대학 경제학부 교수 등을 거쳐 현재 교토여자대학 객원교수 및 교토대학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그사이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에서 교육 및 연구직에 종사하였다. 저서로는 《격차사회》, 《여-여 격차》, 《와세다와 게이오》, 《학력격차의 경제학》(공저), 《도쿄대》, 《교육과 격차》(공저), 《일본의 경제격차》, 《교토의 3 대 대학 교토대학·도시샤대학·리츠메이칸대학》, 《학력입문》, 《공립 vs 사립》, 《일본의 경제학부》, 《프로야구의 경제학》등 다수가 있다.

No.20170712-006

제목: 돌아온 매일 밥상

저자: 다카야마 나오미

페이지수: 240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6년 10월 07일



<내용소개>

소박하고 정성이 깃든 식사메뉴, 놓치기 쉬워 그만큼 더 소중한 추억을 엮어낸 에세이

잡지, 책, TV방송 및 영화 등 각종 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일본의 요리 연구가 '다카야마 나오미'.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만들어 먹는 과정에서 오감을 충분히 활용하는 레시피를 선보여 큰 인기를 얻었다. 수많은 저서 중, 채소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와 노하우를 소개한 《채소 한 그릇》은 한국에도 번역 출간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카야마 나오미는 요리 연구가인 동시에 수준급의 문장력을 갖춘 작가이기도 하다. 큰 인기를 모았던 일기 에세이 《매일 밥상》은 2004년부터 2010년에 걸쳐 총 12권이나 되는 분량으로 출간되었고, 새롭게 선보인 《돌아온 매일 밥상》시리즈도 독자들에게 호평 받고 있다. 1권이 2008년 11월~2012년 9월의 일기와 앨범 등을 모아 2015년 말에 나왔고, 이어 2016년 말에 2권이 나온 것이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일기와 앨범, 레시피 등이 수록되어 있다.

《돌아온 매일 밥상》은 시리즈의 다른 타이틀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일상과 요리에 대한 생각들이 차분하고 수려한 문체로 표현되어 있다. 계절이 바뀌는 느리고도 빠른 과정을 음식을 통해 깨닫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만들어 누군가와 같이 먹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포착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쉽게 놓쳐버리기 쉬운 장면들이기도 하다. 산 속에 있는 집에서 캠프를 온 것처럼 지내기도 하고,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빛이 강렬한 사막의 나라 우즈베키스탄으로 취재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요리책 집필과 촬영해 몰두하는 나날들이 펼쳐지기도 한다. 물론 요리가 빠질 수 없다. 해당 페이지에 등장하는 요리들은 상단에 메뉴명이 쓰여있다. 버섯밥, 모듬회, 와인 간장에 절인 여주와 무, 가지 스테이크, 마카로니 샐러드, 시금치 나물 등 평범하지만 정성이 필요할 것 같은 음식들이다. 굴과 유채꽃을 넣은 크림 스파게티, 산나물 튀김, 게살과 야채를 넣은 계란말이 등 계절감이 느껴지는 요리들도 등장한다. 한 파트가 끝날 때에는, 본문에 나온 요리 중 하나를 골라 레시피를 공개한다. '스이세이'라는 이름으로 종종 등장하는 남편의 '스이세이 해설 식사2'도 재미 있게 읽을 수 있다.

일기들은 잔잔한 소설처럼 보이기도 한다. 기쁠 때든 잠시 우울해질 때든, 자연처럼 솔직하고 곧

은 다카야마 나오미의 에세이를 읽으면 어느 새 마음이 차분해질 것이다. 타인의 생활을 살펴보면서 여러 모로 도움을 얻는 '에세이'의 매력이 가득한 책이다.

<목차소개>

2012년 10월~12월

2013년 1월~3월

2013년 4월~6월

앨범

2013년 7월~9월

2013년 10월~12월

<저자소개>

다카야마 나오미

1958년 시즈오카 현에서 태어났다. 레스토랑 웨프를 거쳐 요리연구가가 되었다. 향, 맛, 촉감, 색상, 소리 등 매일 오감으로 식재료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탄생한 심플한 요리는, 만들고 먹는 즐거움을 고스란히 떠올리게 한다. 요리뿐 아니라, 신체 감각을 표현한 글 솜씨도 높이 평가 받는다. 《매일 밥상 1~12》, 《채소 한 그릇》, 《반찬과 밥에 대한 책》, 《오늘의 반찬》, 《똑딱똑딱 식탁 상·하》, 《요리=다카야마 나오미》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www.fukuu.com/>

No.20170712-007

제목: 이야기 속 티타임: '곰돌이 푸'에서부터 '메리 포핀스', '나니아 연대기'까지, 영국 문학과 티타임

저자: 기타노 사쿠코

페이지수: 160

장르: 평론, 요리

출간일: 2017년 07월 20일



<내용소개>

영국의 유명한 아동문학 속에 등장하는 과자, 허브를 소개함으로써 영국문화를 배운다

영국은 여러 분야에서 고유한 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나라다. 축구 중주국이라는 타이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한 영국왕실, 궁전을 호위하는 영국병정들, 빨간 2층 버스, 웨스트엔드로 대표되는 뮤지컬과 수많은 아티스트, 셰익스피어부터 괴팍한 탐정 셜록에 이르는 광범위한 문학작품과 작가 등 끝이 없다. 흥미로운 것은, 음식분야만큼은 혹평을 받는 영국이지만 '티타임' 문화의 발원지라는 점이다.

오후에 스콘과 푸딩, 간단한 베이커리 류와 홍차 혹은 허브 티를 곁들여 여유를 즐기는 티타임. 영국인들을 빠르게 매료시킨 티타임 문화의 흔적은 다수의 문학작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허브를 연구하며 영국에서 지낸 저자는, 자신이 체험한 소박하고 매력적인 영국 문화를 일본에 전해 왔다. 이번 타이틀은 아동문학 11편과 그 속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영국의 과자와 허브를 소개하는 책이다.

총 7권으로 구성된 C.S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제 1권인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 첫 순서다. 어린 4남매가 옷장을 통해 나니아라는 나라에 떨어져 겪는 모험담인데, 여기에는 로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달콤한 젤리 '터키쉬 딜라이트'가 등장한다. 케네스 그레이엄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과 봄의 정취가 가득한 플럼케이크, 엘리나 파전의 《사과 발의 마틴 피핀》과 다양한 사과 요리, 카네기 상 수상작가인 아서 랜섬의 《제비호와 아마존호》와 시드 케이크, 그리고 밀런의 《곰돌이 푸》와 그 속편 격인 《푸 골목의 집》는 시그니처인 꿀과 더불어 애프터눈 티 세트와 쇼트브레드 및 케이크에 홍차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화원》과 에리카, 앨리슨 어틀리의 《시간 여행자 비밀의 문을 열다》에 향기롭게 감도는 타임처럼 저자의 전문분야인 허브도 빼놓을 수 없다. 이외에도 베아트릭스 포터의 《피터래빗의 그림책》에서 나오는 푸딩과 파이, 20세기 판타지 문학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한밤중 톨의 정원에서》와 크림을 가득 얹은 스콘, 마이클 본드의 《패딩턴 곰》의 수제 마멀레이드, 트래버스의 《메리 포핀스》와 진저브레드처럼 영국의 전통이 강하게 느껴지는 음식들도 설명한다.

오랫동안 영국의 식문화와 허브를 연구해 온 전문가가 선보이는, 독특한 아동문학소개서다. 세계적인 명작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여러 과자들에 대한 정보와 레시피도 배울 수 있다. 여유로운 오후에 잘 어울릴, 맛있고 향기로우며 유익한 읽을거리가 담긴 책이다.

<목차소개>

티타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의 무대가 된 장소

사자와 마녀 / 즐거운 강가 / 비밀의 화원 / 사과밭의 마틴 피핀 / 곰돌이 푸, 푸 골목의 집 / 제비호와 아마존호 / 시간의 여행자 / 피터래빗의 그림책 / 톰은 한밤중 정원에서 / 패딩턴 곰 / 바람을 타고 온 메리 포핀스

푸드리스트

<저자소개>

기타노 사쿠코

도쿄 출신. 릿쿄대학 영미문학과를 졸업하였다. 재학 시절부터 아동문학과 허브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 허브를 연구했다. 일본인 최초로 영국 허브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었다. 결혼 후에는 4 년간 워블던에서 지냈다. 아동문학과 허브, 과자 등을 중심으로 영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기본 허브 사전》, 《베아트릭스 포터를 방문하는 영국 호수지방 여행》, 《영국 과자를 즐기는 티타임 순례》 등 다수의 편저서가 있다.

No.20170712-008

제목: 괴로움 속에서도 행복은 찾을 수 있다

저자: 오자와 다케토시

페이지수: 138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6월 30일



<내용소개>

저마다 겪는 궁극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보다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열쇠를 소개하는 책

한국은 12년 연속 OECD회원국 중 자살률 1위다. 지난 20년간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보다 많은 22만 258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히려 6.25전쟁 직후 국민들이 가난에 허덕이던 때에는 먹고 자고 입을 것만 있으면, 가족들이 맘 편히 모여 지낼 곳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 한국은 그대에 비하면 물질적으로는 놀라보게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을 정도로 괴로운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는 것 같다.

더 이상 의료행위가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삶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서로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을 돕는 전문인력을 '호스피스'라고 한다. 예전에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호스피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재택의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완화의료'라는 독립 분야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의사이자 호스피스로 활동 중이다. 환자들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일본 사회에 호스피스의 역할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활약해왔다. 그리고 인간은 삶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행복을 발견하고 남은 시간을 보람차게 살아갈 줄 아는 존재라는 것도 깨달았다고 한다.

꼭 시한부 환자가 아니어도, 모두들 자기만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간다. 이 타이틀에서는 스스로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우선 자기의 괴로움이 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마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 희망과 현실의 차이가 클 때 발생한다. 따라서 그 차이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나가야 한다. 저자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주변인인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남은 시간이 선고된 이들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알게 된 고통의 정체와 인간의 본성, 주위사람에게 자기의 괴로움을 이해 받기 위해 해야 할 일, 본인이 의사로서 호스피스로서 살아오며 공유하고 싶었던 사실들을 설명한다.

누구나 자기의 고통이 제일 쓰라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 친구, 부부, 부모와 형제, 교사와 학생, 상사와 부하, 그 외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덜어줄 열쇠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 제 2장: 한정된 "삶"에서 발견하는 인간이라는 존재
- 제 3장: 자신의 괴로움을 알리기 위해서
- 제 4장: 의사인 내가 살아가는 길

<저자소개>

오자와 다케토시

1963 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1987 년 도쿄지케이카의과대학 의학부 의학과를 졸업하였다. 1991 년, 야마가타대학 대학원 의학연구과 의학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그 후, 구명구급센터, 농촌의료에 관한 일을 하고 1994 년부터 요코하마코세이병원 내과의 호스피스로 근무하였다. 현재 '메구미 재택 클리닉' 원장을 맡고 있다. 호스피스 마인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Facebook 을 통한 정보 전달에 힘쓰는 한편 스스로 호스피스 전도사로 칭하고 학교교육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 삶의 교육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No.20170712-009

제목: 양초의 과학

저자: 패러데이(원작), 히라노 루이지(글), 우에지 유타(그림)

페이지수: 192

장르: 아동 교양

출간일: 2017년 05월 15일



<내용소개>

양초에 숨겨진 기초 화학지식을 24가지 실험과 스토리텔링으로 재미있게 배워봅시다.

영국의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마이클 패러데이'는 그의 이름을 붙인 '패러데이의 법칙'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수한 공적을 남긴 패러데이는 전자기학의 모태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동시에 훌륭한 강연자였습니다. 사람들, 아이들이 과학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중 제일 유명한 것이 크리스마스 강연집이었던 《양초의 과학》입니다. 양초 한 자루가 만들어지고 연소되어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과정을 세심하고 날카로운 과학자의 눈으로 관찰하고, 그에 관련된 화학현상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읽히는 책이며 과학 계몽서의 고전이자 모범으로 손꼽힙니다.

이 책은 패러데이의 《양초의 과학》을 아동 교양도서로 편찬한 것입니다. 양초와 관련된 총 24가지 실험을 일러스트와 스토리를 더해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프롤로그에서는 패러데이라는 인물의 생애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쌍둥이 남매 '히나'와 '히로토'가 주인공입니다. 히나는 요리를 좋아하며 얼마 전에 전학을 왔습니다. 히나의 남동생인 히로토는 낯선 장소를 탐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들을 도와줄 사람은 '하라데 선생님'입니다. '과학이 좋아지는 즐거운 실험교실 - 양초 과학 연구소'를 만들었으며, 과학자 패러데이의 엄청난 팬입니다. 자유연구 주제를 고민하다가 양초과학 연구소에 가게 된 히나&히로토 남매가 하라데 선생님에게 양초의 과학을 배우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1장에서는 실과 오일로 직접 양초를 만들기, 양초의 형태 관찰하기, 소금과 설탕을 이용해서 모관현상 배우기 등의 실험을 합니다. 2장에서는 불에 탄 양초가 만들어내는 연기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실험을 해 봅니다. 3장에서는 연기 때문에 우리가 뿌연게 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양초가 타면서 물이 생기는 화학 변화와 물리변화, 얼음과 물의 차이 등을 배웁니다. 4장에는 전지를 이용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기화, 기체의 정체 등을 배우는 실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아이들이 흔히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공기의 무게,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실험을 해볼 것입니다. 마지막 6장에서는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승화, 주변에 있는 탄소를 발견하기, 양초의 불이 꺼지는 원리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양초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기초 화학지식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재료입니다. 소설 느낌이 나는 이 실험 책을 즐겁게 읽는 사이 자연스럽게 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제 1장: 녹은 양초는 어떻게 될까?

제 2장: 불에 탄 양초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제 3장: 연기로 유리가 뿌옇게 되는 것은 왜일까?

제 4장: 양초는 왜 타는 것일까?

제 5장: 공기는 눈으로 볼 수 없을까?

제 6장: 양초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에필로그

<저자소개>

패러데이(원작)

영국의 과학자. 1791년, 런던 교외에서 태어났다. 벤젠, "패러데이의 법칙" 발견 등 수많은 눈부신 업적을 남겼다.

히라노 루이지(글)

아이치 현에서 태어났다. 모험기획국 소속 작가 및 게임 디자이너. 테이블 토크 RPG 등을 개발하고 있다.

우에지 유히(그림)

미에 현 출신인 만화가·일러스트레이터. 잡지와 WEB에서 작품을 집필하는 등, 학습만화와 삽화 일러스트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No.2017071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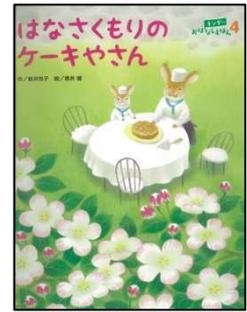
제목: 꽃피는 숲의 케이크 가게

저자: 아라이 에츠코(글), 구로이 켄(그림)

페이지수: 36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7년 04월 01일



<내용소개>

꽃피는 숲의 새로운 일원이 된 토끼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토끼 가족은 꽃피는 숲으로 이사했습니다. 토끼 가족은 짐을 정리하고 케이크 가게를 열기로 합니다. 아기토끼 '후'와 '스'도 설레는 마음으로 새 집에 도착했는데, 후는 생각보다 낡고 지저분한 집에 실망합니다. 그런 후를 아빠토끼가 목마에 태워 달라고, 함께 집을 정리하고 케이크 가게를 준비하기로 약속합니다. 아빠는 재료를 사기 위해 집을 비우고, 엄마는 아픈 동생을 돌보는 동안에도 혼자 열심히 벽에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러다 지쳤을 때, 꽃피는 숲의 아이들이 후의 주위에 모여듭니다. 아기 곰도, 아기 다람쥐도 모두 붓을 하나씩 들고는 후를 위해 페인트 칠을 도와주었습니다. 후가 맡은 일을 다 끝내주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아빠토끼는 예정대로 가게를 열고 달콤한 케이크를 구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과 이웃들이 케이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곳은 꽃피는 숲에 사는 동물들이 모이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이사를 오고 친구를 사귀고 케이크 가게를 열기까지, 토끼 가족의 이야기가 미소를 짓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그림체가 꽃피는 숲의 분위기를 잘 표현해주었습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아라이 에츠코(글)

1969년 사세보 시에서 태어났다. 아이를 위한 교재 편집을 거쳐, 출산을 계기로 사세보로 돌아왔다. 두 아이의 엄마. 그림책 《오늘은 특별한 날》, 《목수와 고양이》등이 있다.

쿠로이 켄(그림)

1947년 니이가타시에서 태어났다. 니이가타대학 교육학부미술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2년간 아동그림책을 편집을 한 후, 1973년에 퇴사했다. 그 후 프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그림책, 화보집, 달력 등을 폭넓게 제작했으며, 1983년 산리오미술상을 수상했다. 작업에 참여한 그림책으로는 《금빛여우》, 《아기여우와 털장갑》 등이 있으며 화보집으로는 《구름의 신호》, 《SWEET TIMES》, 《나의 이하트》 외 다수가 있다.